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0년 11월 2호

◆ 주요 동향

1. 웨하이(威海) '플라스틱 제로 도시' 건설을 위한 해상 '플라스틱 제로 항행구역' 건설
威海打造“无废城市”：发挥海洋区位优势 建设海上“无废航区”
2. 「북극청서 : 북극지역 발전보고」 발표, 소통·협력 강화 및 북극 거버넌스 참여 강조
《北极蓝皮书：北极地区发展报告》发布 加强沟通合作 参与北极治理
3. 올해 1~3분기 칭다오(青岛) 해양생산총액 2592억 위안 기록, 전년대비 3.9% 증가
2592亿，同比增长3.9%！青岛“海洋攻势”亮前三季成绩单
4. 중국 흥업은행(兴业银行)과 칭다오은행(青岛银行), 유엔 지속가능한 블루경제 금융 이니셔티브에 가입
兴业银行、青岛银行加入联合国可持续蓝色经济金融倡议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5. 중국에서 해역, 무인도의 자연자원 통일한 권리확립 등기 시범지역 사업 개시
我国海域、无居民海岛自然资源统一确权登记试点工作启动
<http://www.nmdis.org.cn/c/2020-11-20/73221.shtml>
6. 산둥성 현대해양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할 계획
山东将建现代海洋产业技术创新中心
<http://www.nmdis.org.cn/c/2020-11-18/73210.shtml>
7. 올해 1~3분기 산둥성 해양생산총액 1조 900억 위안 기록
前三季度山东省海洋生产总值实现1.09万亿元
<http://www.nmdis.org.cn/c/2020-11-16/73195.shtml>
8. 산둥 르자오(日照)에서 중국 최초 항만해안선을 생태해안선으로 복원시키는 사업 실시
山东日照实施全国首例港口岸线修复为生态岸线工程
<https://mp.weixin.qq.com/s/YNbMR7Uh8feLCG4ezxQgcQ>
9. 저우산(舟山) 해양산업 클러스터, 올해 1~10월 신규 등기 기업 3960개, 전년대비 5.46% 증가
舟山海洋产业集聚区：今年1到10月新注册企业3960家，同比增长5.46%
<https://mp.weixin.qq.com/s/3AJmNAOGXKfmmOXhybrtA>
10. 중국 국가급 해양과학연구기지 내년 건설 완료
国家级海洋科研基地将于明年建设完成
<http://www.nmdis.org.cn/c/2020-11-24/73258.shtml>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 / +86-21-6090-0395)

웨이하이(威海)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을 위한 해상 '폐기물 제로 항행구역' 구축

■ 웨하이시 생태환경국은 2019년 10월에 발표된 「웨이하이시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시범지점 실시방안」을 이행하고, 특색적인 '폐기물 제로 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웨하이해사국, 동제대학교(同济大学)와 함께 청산터우(成山头) '양제(两制)'¹⁾ 구역에서 '폐기물 제로 항행구역'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음

- 2018년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시범지점 업무방안」에서 제시한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웨하이시를 비롯한 11개 시범도시²⁾를 선정한 바 있음
- 웨하이 청산터우 구역은 중국 남북 해상물류통로의 중요한 지점이며, 중국에서 첫 번째로 유엔 국제해사조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양제' 구역임

■ '청산터우' 구역의 통항환경이 복잡하고 선박의 유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해상 선박으로 인해 쉽게 오염될 수 있음. 따라서 이 구역의 폐기물을 정돈하는 것은 웨하이의 '폐기물 제로 건설'의 중요한 일부분임

■ '폐기물 제로 항행구역' 시범건설 추진을 위해, '폐기물 제로 항행구역' 건설 실시방안을 발표했고, 「웨이하이시 '폐기물 제로 항행구역' 건설 지표체계 연구보고」도 편성했으며, '폐기물 제로 항행구역'을 위한 '3+4+5+6' 목표 지표체계를 제시했음

- '3': 선박 오염원의 발생, 과정에 대한 통제 및 해상 대처를 포함한 세 가지 프로세스를 관제 대상으로 전과정 관제목표의 수립을 모색함
- '4': 선박오염물 대처, 인원 훈련, 감독관리 및 정돈 등 면에서 선박오염물 표준 초과 '제로' 및 감량화 배출을 실현함
- '5': 오염 예방체계, 오염 감독체계, 오염 정돈체계, 오염 처벌체계 및 홍보체계를 포함한 5개 체계를 중심으로 관리지표 체계를 구축했음
- '6': 웨하이 해양경제의 발전특색과 해운오염원을 고려해서 6개 '폐기물 제로' 시범지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 '폐기물 제로 항행구역'을 위해 수립된 '3+4+5+6' 목표 지표체계는 보편성과 독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웨하이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의 경험과 모델이 될 수 있음

(生态环境部, 2020. 11. 15.)

<https://mp.weixin.qq.com/s/SB5SQYvCqP8cteXF0iCpGA>

1) 양제(两制): 「청산자오(成山角) 구역에서 선박 항로를 규정하여 코스에 따라 운행의 제도」 및 「청산자오 구역 선박 강제 보고 제도」를 가리킴
 2) 11개 시범도시: 광둥 선전(广东深圳), 내몽골 바오터우(内蒙古包头), 안휘 통링(安徽铜陵), 산둥 웨하이(山东威海), 충칭(重庆) 주성구, 저장 샤오싱(浙江绍兴), 하이난 쑤아(海南三亚), 허난 쉬창(河南许昌), 장쑤 쉬저우(江苏徐州), 랴오닝 판진(辽宁盘锦), 칭하이 시닝(青海西宁)

중국 「북극청서 : 북극지역 발전보고」 발표, 소통·협력 강화 및 북극 거버넌스 참여 강조

- 최근, 중국해양대학교 극지연구센터가 편성한 「북극청서 : 북극지역 발전보고(2019)」(이하 「북극청서」로 약칭)가 정식으로 발표되었음
- 「북극청서」에서 2019년부터 미국, 러시아, 캐나다와 일부 북유럽 국가가 북극전략을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런 배경 아래 중국의 북극사무 참여는 관련 북극 국가의 달라진 전략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9년 북극관련 주요국가의 조치들
 - 「북극청서」에 따르면, 2019년에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북극전략 전망」, 「북극전략」 등 여러 개의 중량급 문서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 상의원 의원은 미국이 북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북극정책 법안」과 「해운과 환경, 북극 리더십 법안(Shipping and Environmental Arctic Leadership Act)」을 제시했음
 - 2019년에 러시아는 북방해 항로 통항 신규 선포, 북극지역 인프라 개선 조치 발표 등의 일련 행동으로 북방해 항로에 대한 관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2019년에 캐나다는 주민의 건강,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경제발전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북극과 북방정책 프레임」을 발표했다
 - 아이슬란드는 북극 거버넌스의 질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북극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019년에 아이슬란드는 의장국으로서 ‘북극 해양환경’, ‘기후와 녹색 에너지 해결방안’, ‘북극 거주민과 지역사회’ 및 ‘북극이사회 강화’의 네 가지 중점 업무분야를 확정했음. 특히, 아이슬란드는 북극해 플라스틱 오염, 해양 산성화 등 해양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익관계자의 구역과의 협력 강화”를 건의했음. 여기서 이익관계자는 북극국가뿐만 아니라, 북극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비북극 국가나 지역조직 등도 포함돼 있음
- 실무적 협력 추진
 - 「북극청서」에서 향후 몇 년 동안에 미국이 북극사무에 있어 여전히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각국은 미국의 북극사무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음
 - 현재 국제해사기구 등은 북극 해운 관리, 북극해 공해 어업관리 등 플랫폼이 중국의 북극사무 참여를 위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음. 중국은 양자관계로부터 러시아, 북유럽 국가와의 실무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특히 과학조사, 환경보호와 상업개발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빙상실크로드’를 건설하도록 함
 - 「스발바르 조약」에 의해 조약 체결국은 북극 특정구역 출입 권리를 가지고 있고, 특정구역 내에서 과학연구, 생산, 상업 등 활동 전개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음. 그러나 노르웨이 가 스발바르 제도에서 진행된 과학연구 활동에 대한 관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북극 과학조사 활동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중국 북극사무 참여에 대한 건의

-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북극사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중국이 북극이사회 체제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소통의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인프라 건설의 장점을 발휘하여, ‘일대일로’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국가와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그들을 위해 인프라 건설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
- 또한, 중국은 북극해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해양 산성화 대응, 해상 구조와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면에서 북극사무 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그 외에는 중국은 이미 「중양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을 체결했으나, 체결국의 어업이익에 관한 부분의 핵심내용 등이 확정되어야함. 중국은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북극국가 및 이익관계자와 함께 북극어업관리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中国自然资源报, 2020. 11. 18.)

<http://www.nmdis.org.cn/c/2020-11-18/73209.shtml>

올해 1~3분기 칭다오(靑島) 해양생산총액 25,92억 위안 기록, 전년대비 3.9% 증가

- 칭다오시 해양발전국에 따르면, 올해 칭다오시의 해양경제는 안정 속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여 주었음. 올해 1~3분기 칭다오시 해양생산총액은 2592.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음
 - 해양산업 고정자산 투자액은 5.7% 증가했고, 새로 계약된 해양관련 사업은 총 57개, 계획된 총 투자액은 1587억 위안에 달했음
- 2019년부터 칭다오시의 ‘해양공세(海洋攻势)’ 과제를 추진한 이후, 칭다오 해양발전국은 큰 해양사업의 유치 및 해양관련 중점사업의 추진을 주요방향으로 삼고 있음
 - 해양사업 유치를 위해, 칭다오 해양발전국은 「칭다오시 해양분야 기업 투자 유치 방안」 및 「2020년 해양분야 기업투자 유입 리스트」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해양분야 중점산업의 산업체인 10개, 중점산업 30종, 기업투자 유입 리스트 20종이 포함돼 있음
- 해양관련 중점사업 대대적 추진
 - 칭다오 해양발전국은 중루(中魯)어업정밀가공단지과 관련 어항사업(300억 위안), 중국 북방(칭다오)국제수산물거래센터와 콜드체인물류기지(330억 위안), 궈신(国信)1·2·3차 해양산업 융합발전 선도구역(600억 위안) 등 일련의 중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1~10월 기간에 칭다오시는 총투자 규모가 4000억 위안을 넘는 134개 해양관련 중점사업에 대해 총 405억 위안의 투자를 완성했으며, 이는 올해 투자계획의 93%를 차지했음
- 다음 단계에서 칭다오 해양발전국은 ‘선도기업+우세 산업클러스터+특색원구’의 모델에 따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구도를 배치하고, 일련의 중점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할 것임
 - 중국 북방(칭다오)국제수산물거래센터와 콜드체인물류기지 사업에 의지해서 2000억 위안 생산액을 넘는 수산물 가공과 무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
 - 궈신(国信)1·2·3차 해양산업 융합발전 선도구역 사업에 의존해서 지모구(即墨区)에서 1000억 위안의 생산액을 넘는 현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
 - 총 투자 규모가 43억 위안이 된 해양과학기술밸리 사업에 의거하여 주변의 바이오의약 기업과 협력해서 해양바이오의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
 - 해수담수화 장비 제조, 해상풍력발전 장비제조, 심해장비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련의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을 모색하고 칭다오시의 해양산업 클러스터화 발전을 추진함

(靑島财经日报, 2020. 11. 23.)

<https://dy.163.com/article/FS3OQGGL05199UID.html>

중국 쑹예은행(兴业银行)과 칭다오은행(青岛银行), 유엔 지속가능한 블루경제 금융 이니셔티브에 가입

- 최근, 중국 쑹예은행(兴业银行)과 칭다오은행(青岛银行)은 UN환경계획(UNEP)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블루경제 금융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게 되었음. 두 은행은 향후 ‘지속가능한 블루경제 금융원칙’을 준수하여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할 것임
- 쑹예은행은 세계에서 제27번째로 체결된 기구와 제49번째로 가입된 회원기구로서 최초 중국자본으로 구성된 회원기구가 되었음. 칭다오은행은 제50번째로 가입된 기구가 됨
- ‘지속가능한 블루경제 금융원칙’은 ‘해양금융’의 힘을 입어 해양의 번영을 재건하고 생물다양성과 해양의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함.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관리기구로서 은행, 보험과 투자자가 ‘원칙’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줌
- 중국은 해양경제 금융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2018에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기관이 함께 「해양경제발전 금융서비스 개선과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내놓았음
- 칭다오은행, 해양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적 방법 적극적 모색
- 칭다오은행은 「칭다오은행 칭다오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서비스 방안」 및 「칭다오 해양경제 운영을 위한 종합 금융서비스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금융상품과 서비스 모델에 대한 혁신, 새로운 융자경로의 구축, 서비스 절차의 개선, 원스톱 서비스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블루경제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실체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음
- 칭다오은행은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경제 관련 산업 신용대출 투자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고,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목표를 실현할 계획임
- 첫째,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성장을 지원함. 둘째, 해양금융으로 칭다오은행을 해양부문에서 영향력을 가진 블루은행 브랜드를 구축함. 셋째, 해양금융 능력 육성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혁신 및 관련 신용대출 정책, 절차, 체계의 개선을 추진함
- 쑹예은행, 녹색금융의 선도자로서 수자원 활용과 보호에 앞장서
- 쑹예은행은 2013년부터 중국 국내 최초의 수자원 이용과 보호 종합 해결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중점 지원분야로하여 투입을 계속 확대하고 다양하고 전면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했음
- 쑹예은행은 중국에서 첫 번째 블루채권을 발행하여 해수담수화사업의 건설에 사용하였음
- 쑹예은행 관계자는 “이니셔티브 가입으로 은행 자체의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혁신, 환경과 사회 리스크의 관리, ESG체계의 구축 등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로 ‘해양 건강’을 회복시키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음

(财经网, 2020. 11. 24./ 证券日报, 2020. 11. 18.)

<http://finance.caijing.com.cn/20201124/4717102.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83690951049546992&wfr=spider&for=pc>